

# 한국 한문 고전자료와 학술 플랫폼\*

陳在敎\*\*

- |                                |                                  |
|--------------------------------|----------------------------------|
| I. 머리말, 한문 고전자료와 플랫폼의 만남       | III. 조선조 후기 學術과 文藝 場에서 지식·지식인 지도 |
| II.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의 설계와 구조 | IV. 맺음말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방대한 한문 고전자료를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찰한 것이다. 디지털과 스마트 환경에서는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한문 고전자료라 하더라도 가공의 과정을 거쳐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여 콘텐츠로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지식과 지식인지도는 기왕의 것과 다른 하나의 학술 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지평은 넓다. 더욱이 전근대 지식과 지식인지도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수용과 생성의 궤적과 그 추이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식의 수용과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변이, 그리고 지식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개인 연구가 할 수 없는 연구의 시야와 연구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동아시아, 한문 고전 자료, 디지털 환경, 학술 플랫폼, 지식인지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한문 고전자료와 플랫폼의 만남

플랫폼을 통해 가치를 이용하듯, 다양한 지식·정보를 한자리에 모으는 웹 공간을 플랫폼이라 한다.<sup>1)</sup> 이 플랫폼을 학술에 연결한다면 학술적 이슈를 담은 자료나 문서가 모이는 웹 공간을 학술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웹상에서의 학술 플랫폼은 학술적 의미를 지닌 지식·정보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생태계를 제공해 준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이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플랫폼을 활용한다.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플랫폼을 기획하고 구축한다. 현재 플랫폼은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은 공유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학문 생태계와 손쉽게 결합해 가고 있다. 우리는 학술 플랫폼을 통해 단순 검색에서부터 조사와 연구, 연구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에 접속하여 손쉽게 호출한다.

연구자도 다양한 플랫폼은 물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시공을 뛰어넘어 원하는 지식·정보를 획득한다. 이처럼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학술 장에서까지

---

1) 디지털 혁명과 함께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넘어 플랫폼이 하나의 場의 의미로 확대된 것은 스마트 혁명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틀을 말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 초일류 기술기업은 모두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으로 明暗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만나듯이 학술에서 이를 활용하더라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문 고전자료를 콘텐츠로 가공하여 플랫폼을 통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학술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학술 플랫폼을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단지 인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고 집단지성을 뛰어넘는 학술 의제와 연구 방법을 창신하기 위해 디지털기술에 기대 학술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학술 플랫폼이라 하였다. 이를테면 독창적 플랫폼을 앞세워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 구글,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주도하듯이,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독창적인 학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하나의 사례로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문 고전자료를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활용한다면, 새로운 학술적 비전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사회적 위상은 스콧 겔러웨이 저, 이경식 역,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플랫폼의 활용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 장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과 연구시각은 물론 학술에서 새로운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인문학 연구자도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학술 정보를 획득하거나 공유지식으로 환원하는가 하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개척해 가고 있다. 학술 플랫폼은 아날로그 방식의 개인이나 공동연구에서 불가능하던 학술 아젠다의 생성과 함께 방대한 자료의 기획과 자료의 가공, 자료의 효율적 배치와 다양한 검색 등을 통해 기존과 사뭇 다른 학술적 지평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한문 고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라는 학술 플랫폼이다. 여기서는 이 학술 플랫폼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과 한문 고전자료가 어떻게 만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sup>2)</sup>

## II.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의 설계와 구조

전근대 동아시아는 오랜 기간 한자문화권에서 한문과 한문 글쓰기를 매개로 인적·물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학술과 문화를 교류하였다. 17세기 전후로 동아시아는 국제 질서의 전환과 함께 使行을 통해 교섭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를 보다 풍부하게 하였다. 이 시기 동아시아 삼국은 사행을 통해 직·간접으로 교류하는가 하면, 인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식·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지식인은 새로운 견문 지식을 소통함으로써 일국 너머의 지식·정보의 획득과 함께 시대상을 인식한 바 있었다. 교류를 통한 지식·정보의 체험과 지식인의 상호인식은 이 시기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행 기록이나 필기 자료 등을 통해 17세기 이후의 지식과 지식인 간의 상호 관계와 소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플랫폼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sup>3)</sup>다.

2) 이 논문은 진재교,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121~159면)를 발전시켜 이후 다시 설계한 플랫폼과 메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작성한 글이다.

3) 이 학술 플랫폼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하나로 구축하고 있는 데이

이 학술 플랫폼은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적 시공간에서 동아시아 지식인은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어떻게 유통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지식은 지식인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식인 지도는 플랫폼기술을 활용하여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삼국 지식인의 상호교류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소통 양상과 그 관계도를 웹에서 검색하고, 이를 학술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국내외 지식인 상호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입력은 물론, 지식·정보와 지식인이 관련을 맺는 자료를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여 메타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지식인 관계망과 지식과 지식인 상호 간 관계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자료를 가공·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웹에서 지식과 지식인 관계망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이 학술 플랫폼은 17세기~19세기까지 사행 기록과 필기류, 그리고 일부 문집을 활용하였다.<sup>4)</sup> 대체로 조선조 지식인을 중심에 두고 일국 내의 지식인 관계망은 물론, 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청조와 에도막부 등 일국 밖의 지식인과 관계를 알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식·정보와 지식인 상호 간의 관계망은 조선조 후기 사회의 학술과 문학 등 다양한 심층과 그 지형도를 탐색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사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는 10여 년 전 개인 차원에서 소박하게 구상하면서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여 년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斷續적으로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원의 지원도 일정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처음 설계와 달리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미비함을 계속 확인하였다. 이를

---

터베이스다. 동아시아학술원의 ‘디지털 동아시아학’에는 「한국 경학 자료 시스템」, 「한국족보자료 시스템」, 「한국주자학 용어 시스템」, 「대구 및 단성 호적 DB」,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 「연행록 DB」, 「동유럽 외교문서 아카이브」, 「한국 유경 DB」 등이 있다. 현재 계속해서 업 데이터를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플랫폼도 있으나, 이미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도 있다.

- 4) 역대 동아시아에서 생성된 인물을 통한 문화교류의 자료를 뽑아 정리한 성과가 있다. 일부 자료는 여기서 제시한 것과 일부 중복된다. 그런데 문헌에서 자료를 뽑아 편찬하는 것과 플랫폼을 학술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방식은 전혀 별개의 작업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전근대 한국·중국·일본의 인물을 통한 문화교류를 집대성한 자료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 자료 사전』 I·II·III·IV, 문예원, 2011~2013.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관계망을 보여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특히 메타 데이터의 입력이 많아질수록 지식인 관계망을 보여주는 시각 화면도 함께 복잡해 화면에서 지식인 관계망을 보여주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sup>5)</sup>

이처럼 이 학술 플랫폼은 비록 향후 보완할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술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축한 메타 데이터는 17세기~19세기까지의 연행록과 통신사행록 일부와 필기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사행 기록의 경우, 사행에 참여한 인사와 관련이 있는 중국과 일본 지식인의 문집과 필담집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는 지식·정보의 추이를 탐색하는데 유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먼저 메인화면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 ‘메인화면’〉

- 5)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후술할 것이다.
- 6)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서버 주소는 <http://jisik.skku.edu/front/member/login.do>이다. 현재 한문 고전자료를 가공하여 메타 데이터로 지속해서 현재 올리고 있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이 발주한 외주 업체에서 이 메타 데이터를 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외주 업체의 서버 주소는 <http://dev.yoonsid.com:10081/front/main/index.do>이다. 하지만 이 플랫폼은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실제 플랫폼이 구동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여전히 작업 중이라 연구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못한다.

메인화면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의 기본 설계는 위쪽 원편 상단에 이 학술 플랫폼의 소개란을 마련하였다. 이를 클릭하면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플랫폼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자료열람’과 ‘지식인 관계망’을 두었다. 지식인 관계망을 중심으로 지식인의 상호 관련과 함께 지식과 지식인의 상호關係를 비롯하여 지식의 유통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학술 플랫폼에서는 ‘자료열람’ 아래에 ‘인물 정보’, ‘지식정보’, ‘출전정보’를 아래에 배치하였다. 인물 상호 간, 혹은 인물과 지식 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인물 정보’는 한국[조선]·중국[청]·일본[에도막부]·기타[국가]와 같이 국가별로 구분하였고,7) 나오는 인물의 순서는 모두 한글 발음 자모순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지식인의 경우, 生沒年과 字號를 제시하였다. 官職을 역임한 경우 대표 관직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저술이 있는 경우 해당 저술과 문집을 적었다. 그런데 ‘인물 정보’에서는 지식인 상호 간에 직접 관계 맺는 사례도 있지만, 지식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이 경우 모두 그 자료를 입력하였다. 아래는 자료열람을 클릭한 하나의 화면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한글 자모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 중 ‘ㅂ’의 ‘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관련 인물이 나온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The Map of Knowledge and Intellectuals in Asia

HOME | LOGOUT | SITEMAP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소개    자료열람    지식인관계망    커뮤니티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READING**  
자료열람

인물정보

한국 > 바(92)

| 이름(한자)   | 생년 ~ 종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박경행(朴敬行) | 1710~미상   | 한국 | 陽安 | 仁則     | 地軒 | 통해군수               |               |
| 박구(朴球)   | 미상~미상     | 한국 |    |        |    |                    |               |
| 박규수(朴維壽) | 1807~1877 | 한국 | 潘南 | 聖廟, 鼎卿 | 聖齋 | 이조참판, 공조판서, 영안도관찰사 | 『聖齋集』, 『聖齋集解』 |
| 박내원(朴來源) | 미상~미상     | 한국 | 潘南 |        |    | 上樞 韓將              |               |
| 박도룡(朴道龍) | 미상~미상     | 한국 | 密陽 |        |    |                    |               |
| 박도상(朴道相) | 1728~미상   | 한국 | 密陽 | 聖廟     |    | 승지                 |               |
| 박동암(朴東堧) | 1569~1635 | 한국 | 潘南 |        |    |                    |               |
| 박동선(朴東善) | 미상~미상     | 한국 |    |        |    |                    |               |
| 박동열(朴東烈) | 1564~1622 | 한국 |    |        |    |                    |               |
| 박동초(朴東初) | 미상~미상     | 한국 |    |        |    |                    |               |

1 / 10    1 2 3 4 5 6 7 8 9 10    10개 보기

### 〈인물 정보 - 사례〉

- 7) 기타국가는 드물기는 하지만 조선조 지식인이 연행에서 만난 이국 사신이나 인물, 그리고 통신 사행에서 만난 네덜란드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인물과 그들이 전해주는 다양한 지식·정보를 위하여 이 항목을 배치하였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례는 ‘인물 정보’ 항목을 클릭하여 나온 화면이다. 여기에는 모두 92명의 인물을 검색할 수 있다. 기왕의 자료를 통해 인물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인물 관련 기초정보나 저술과 문집 여부 등을 밝혀 놓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인물 정보’에 제시된 특정 인물을 클릭하면 지식인 관계망이 그림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식인 관계망의 그림은 지식인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지식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서 紫霞 申緯(1769~1845)의 사례를 보자.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The Map of Knowledge and Intellectuals in Asia

HOME | LOGOUT | SITEMAP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소개

자료열람

지식인관계망

커뮤니티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RELATION**  
지식인관계망

인물정보

한국

가(264)

나(41)

다(15)

마(26)

바(92)

**사(161)**

아(497)

자(174)

차(44)

타(14)

하(158)

중국

일본

기타

지식정보

출판정보

**인물정보**

신위(申緯)

인물 :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지식 : 지식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신위(申緯) | 1769 ~ 1847 | 한국 | 平山 | 漢望 | 紫霞, 雪修室 | 병조참지, 국산부사, 병조참판, 강화유수, 대사간 | 『雪修室全稿』 |

〈지식인 관계망 사례〉

기왕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식인 관계망을 구성한 것이다. 申緯가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외 인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신위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지식인 관계망은 입력한 자료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타나는 인물의 관계망 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국내 인물은

8명이며, 중국 인물은 1명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중국 인물의 경우 색[푸른색]을 달리하여 ○안에 이름을 표시하였다. 중국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지식인도 색을 달리하여 ○안에 이름을 표시하였다. 이를테면 나라별로 인적 관계를 맺은 인물을 화면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중국/일본/기타(국가)’ 등 국가별로 ○색을 달리하여 ○안에 이름을 적었다.<sup>9)</sup>

그런데 신위 주위로 방사 형태로 배치되어있는 각 인물을 다시 클릭하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관계를 지닌 인물이 다시 放射 형태의 관계망으로 나타난다. 한꺼번에 한 인물이 관계 맺는 모든 양상을 한 화면을 보여줄 수 없어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sup>10)</sup>

신위가 청조 인사와 관계를 맺은 것은 그가 1812년 書狀官으로 사행에 참여하면서다. 신위는 사행에서 翁方綱(1733~1818)과 교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지속해서 조선의 금석문과 필법을 주제로 옹방강 같은 인물과 학술적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일국을 뛰어넘어 활발한 교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도표 아래에 관련 인물 9명 중 옹방강의 ‘관계’ 항목 아래에 있는 ‘사행-중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신위가 이렇게 적은 인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입력 자료가 늘어나면 지식인 관계망도 훨씬 촘촘해진다. 이를테면 향후 계속해서 자료를 입력한다면 인적 관계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제시한 화면은 현재 입력한 자료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 학술 플랫폼에서 화면으로 제시된 지식인 관계망도 현재의 입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입력 자료가 많아지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관계의 양상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9) 한국은 녹색○로 중국은 푸른색○로 일본은 주황색○로 기타국가는 붉은색○로 표시하여 쉽게 국가별로 구분하였다.

10) 사실 이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에서 가장 맹점의 하나가 하나의 화면에 모든 관련 인물의 관계망을 연결하여 보여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향후 보완해야 할 난제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The Map of Knowledge and Intellectuals in Asia

HOME | LOGOUT | SITEMAP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소개

자료열람

지식인관계망

커뮤니티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READING

자료열람

인물정보

지식정보

출전정보

☛ > 자료열람 >

• 「**葦溪又跋余所携安平大君絹本眞蹟曰。此能以松雪手腕。運聖教序筆意者。眞確驗也。系以二絶句**」

宮女凝脂落墨勻。豪華公子自無塵。鬪波腕運懷仁集。曠四百年無此人。世傳匪懈堂喜弄翰于美人肌膚。故氣韻流麗過人。其二石峯撐肉懸松筋。臨戰安閑匪懈軍。百鍊剛來柔繞指。畫家又一石陽君。

• **관련인물(2명)**

| 이름(한자)   | 생년 ~ 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신위(申緯)   | 1769~1847 | 한국 | 平山 | 溪畝     | 紫霞, 警修堂 | 병조참지, 국신부서, 병조참판, 강화유수, 대사간 | 『警修堂全集』                     |
| 옹방강(翁方綱) | 1733~1818 | 중국 |    | 正三, 思叔 | 蒙溪, 蘇齋  | 內閣學士                        | 『蘇米齋蒙亭考』, 『復初齋文集』, 『石洲詩話』 등 |

### 〈자료열람-관련 내용〉

관련 내용은 신위의 『警修堂全藁』 1책에 나온다. 옹방강이 신위가 가지고 있는安平大君의 絹本眞蹟에 발문을 적고 평한 다음 절구 2수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警修堂全藁』을 보면 옹방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관련 내용 대부분은 신위와 직접적인 인적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옹방강 관련 내용을 거론하고 있어 인적 관계망을 보여주는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입력 자료는 일단 인적 관계망을 담고 있는 내용을 일차적으로 입력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인물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입력하였다. 요컨대 자료의 입력은 인적 관계망 관련 내용의 경우, 특정 인물이 직접 교류한 실제 내용과 교류를 통해 관련이 있는 지식 관련 내용 위주로 입력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인물 정보 다음에 ‘지식정보’ 항목을 두었다. ‘지식정보’는 지식인 관계망에서 보라색으로 제시하여 지식 관련 어휘를 표시하였다. 이 지식정보에서는 주로 문화적 요소를 중심에 두고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나누었다. 물질문화에서는 ‘건물/광물/동물/사물/서적/서화/식물/의식주/지도’ 등의 항목을 하위에 배치하고, 그 하위에 다

시 세부항목을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그 하위에 다시 구체적인 物名을 한글 자모순으로 배치하였다. 정신문화에는 ‘기술/문물/제도/지리/풍속’ 등의 항목을 하위에 두고 물질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물질문화의 사례 하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READING**  
자료열람

- 田 인물정보
- 田 지식정보
  - 田 물질문화
    - 田 건물
    - 田 광물
    - 田 동물
    - 田 식물
    - 田 서적
    - 田 서화
    - 田 식음
    - 田 의식주
      - 田 그릇(9)
      - 田 소금(2)
      - 田 음식(23)
      - 田 의복(40)
      - 田 의식주(62)
      - 田 지도
      - 田 물질문화11

**지식정보** ☛ > 자료열람 > 지식정보

• 물질문화 > 의식주 > 의식주(62)

| 지식명    | 지식명      |
|--------|----------|
| 감과(甘果) | 결발(結鞭)   |
| 계(蟹)   | 공단(貢殿)   |
| 과자(菓子) | 관자(管子)   |
| 금의(錦衣) | 금주구(禁酒具) |
| 누금(樓金) | 누옥(樓玉)   |

1 / 7

1 2 3 4 5 6 7 🔍

10개 보기 ▼

### 〈물질문화-의식주〉

위에서 보듯이 물질문화 아래에 ‘건물’ 항목에서부터 ‘지도’ 항목에 이르기까지 물질문화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어를 제시하고, 그 하위에 다시 구체적인 항목을 두었다. ‘의식주’ 개념어의 하위 항목만 하더라도 62항목이나 된다. 따라서 지식정보의 구체적인 개념어는 입력 대상이 늘어나면 그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 입력 대상에 따라 기왕에 제시된 개념어로 포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념어와 그 하위 항목의 경우, ‘지식정보’와 관련이 있는 物名 위주로 선정하고, 이를 하위 항목으로 배치하였다. 이렇게 ‘지식정보’의 하위에 배속된 구체적인 내용은 인물과 함께 연결해 보여줌으로써 ‘지식정보’가 특정 인물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에 등장하는 物名은 눈앞에 존재하는 동식물을 비롯하여 書籍과 書畫, 의식주와 관련 그릇, 소금 음식, 의복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물질문화

등을 구체적 항목으로 설정하여 배속하였다. 이어서 기술, 기예, 축산, 화훼 등에서부터 놀이, 풍속, 혼인 등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새로운 인식과 사유를 견인할 수 있거나 利用厚生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어휘를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로 정신문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The Map of Knowledge and Intellectuals in Asia

[HOME](#) | [LOGOUT](#) | [SITEMAP](#)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소개

자료열람

지식인관계망

커뮤니티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READING**

자료열람

- 인물정보
- 지식정보
  - 물질문화
  - 물질문화11
- 정신문화
  - 기술
  - 문물
- 제도
  - 건축(33)
  - 경제(2)
  - 관직(106)
  - 기관(21)
  - 도량형(1)
  - 병법(2)
  - 수레(8)

**지식정보**

☛ > 자료열람 > 지식정보

• 정신문화 > 제도 > 수레(8)

| 지식명        | 지식명      |
|------------|----------|
| 거연(車轢)     | 대거(大車)   |
| 독륜거(獨輪車)   | 방물거(方物車) |
| 유액보거(油藥寶車) | 청한주(靑翰舟) |
| 태평거(太平車)   | 활육거(霍鹿車) |

1 / 1

1

10개 보기

### 〈정신문화-제도-수레〉

‘지식정보’ 중 정신문화의 하위 항목의 ‘제도’에 배속된 ‘수레 제도’를 예로 들었다. ‘제도-수레’ 항목에는 관련 ‘지식정보’는 모두 8개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지식정보’는 주로 청나라 연행에서 견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太平車’ 항목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검색결과(5건)

☞ > 검색결과

- 인물정보(0건)

+ more

| 번호             | 이름(한자) | 생년 ~ 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    |    |   |   |      |    |

- 지식정보(1건)

+ more

| 번호 | 분류 | 지식명      | 설명 |
|----|----|----------|----|
| 1  | 제도 | 태평거(太平車) |    |

- 출전정보(4건)

+ more

| 번호 | 작품명 > 권자                                                                                                          |  | 기사명    |
|----|-------------------------------------------------------------------------------------------------------------------|--|--------|
|    | 기사내용                                                                                                              |  |        |
| 1  | 설수외사(雪岫外史) > 권1(卷之一)                                                                                              |  | 車同軌    |
|    | 蓋車之制, 大小長短不一 而兩轎之體則出於一則, 至今不易. 是以上自天子黃屋車, 以至輦車、太平車、兵車、戰車、農車, 兩轎之間, 一屬毫釐之爽. 始自黃帝創造, 及見周之考工記, 聖人擬天法地.               |  |        |
| 2  | 수사록(肅毅錄) > 8월(八月)                                                                                                 |  | 初九日    |
|    | 初九日, 晴. 晚后爲見法藏寺白塔, 與諸同伴同乘太平車, 從紫雲城外行, 見高樓樓影於城內, 衙門大道, 道之傍有一高閣, 皆石梁瓦瓦, 高過十丈. 有男女十餘人, 矗立於閣外, 男則面勢矮小.                |  |        |
| 3  | 수사록(肅毅錄) > 9월(九月)                                                                                                 |  | 十三日    |
|    | 長安街上滿太平車者, 皆轎子也. 驢子則大者絕無, 服役甚苦. 非至晝晚夫則不騎也, 而用處甚多. 道上則騎牛, 兩轎, 打穀, 皆以驢爲之. 鄠城則汲水, 載柴, 載糞, 磨役, 非驢則不爲. 僧徒皆乘太平車, 多有妻學者. |  |        |
| 4  | 연계기정(燕薊紀程) > 권3(卷三)                                                                                               |  | 『應求漫錄』 |
|    | 晏然長者, 綢繡典雅. 官兵部郎中, 住順城門外. 時春雪微灑, 一騎蕭蕭, 有一黃人, 乘新歸太平車, 驅從頗多. 車中連呼心田, 仍下車, 執余手款款, 乃某心也. 約會于香樹齋. 又某日, 以備屬寫詩贈之.        |  |        |

〈지식정보-太平車 출전과 내용〉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레 관련 ‘지식정보’는 李喜經의 『雪岫外史』, 韓弼教의 『隨槎錄』, 朴思浩의 『燕薊紀程』 등에 나온다. 李喜經, 韓弼教, 朴思浩 등은 모두 연행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이국에서 견문한 새로운 지식·정보와 관련한 내용 역시 향후 입력 자료가 많으면 그 범위와 항목 역시 다양해짐은 물론이다.

마지막에는 ‘출전정보’를 두었다. ‘출전정보’에는 입력한 자료를 위주로 출전 문헌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64종이다. 입력 자료 중에는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한 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자료를 입력한 예도 있다. 주로 개인 문집의 경우 일부만 입력하고, 사행 기록이나 필기류를 비롯하여 유서는 대부분 모두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입력·가공하여 배치한 인물 정보와 지식정보의 자료의 구체적인 책目を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과 지식인지도에 입력된 자료 목록〉

| 자료명      | 자료 ID | 구축연도 | 저자 및 비고            |
|----------|-------|------|--------------------|
| 警修堂全藁    | B001  | 2015 | 申緯                 |
| 鷄林情盟     | B002  | 2015 | 三宅橘園               |
| 孤山先生文集   | B003  | 2015 | 李惟樟                |
| 錦石集      | B004  | 2015 | 朴準源                |
| 金華畊讀記    | B005  | 2015 | 徐有渠                |
| 南塘先生文集   | B006  | 2015 | 韓元震                |
| 潭庭遺藁     | B007  | 2015 | 金鑪                 |
| 對禮餘藻     | B008  | 2015 | 古賀精里/草場佩川/高津溜川     |
| 對遊日記     | B009  | 2015 | 高津溜川               |
| 東樊集      | B010  | 2015 | 李晩用                |
| 烈婦姜氏傳    | B011  | 2015 | 金命喜                |
| 密菴先生文集   | B012  | 2015 | 李栽                 |
| 薄遊漫載     | B013  | 2015 | 三宅橘園               |
| 淑玉山房初稿   | B020  | 2015 | 청나라 李璋煜(1793~?)    |
| 辛未和韓唱酬錄  | B021  | 2015 | 豬飼正穀               |
| 枰溪遺稿     | B022  | 2015 | 尹定鉉                |
| 心田稿      | B023  | 2015 | 朴思浩                |
| 易園集      | B024  | 2015 | 청나라 李林松(1770~1827) |
| 燕薊紀程     | B025  | 2015 | 朴思浩                |
| 燕巖集      | B026  | 2015 | 朴趾源                |
| 五峯先生集    | B027  | 2015 | 李好閔                |
| 五洲衍文長箋散稿 | B028  | 2015 | 李圭景                |
| 耳溪集      | B031  | 2015 | 洪良浩                |
| 接鮮瘡語     | B032  | 2015 | 松崎謙堂               |
| 貞蕤閣集     | B033  | 2015 | 朴齊家                |
| 朝天記地圖    | B034  | 2015 | 鄭斗源                |
| 芝峯類說     | B035  | 2015 | 李晔光                |
| 淸山島游錄    | B036  | 2015 | 金善臣                |
| 淸山小集     | B037  | 2015 | 金善臣                |
| 秋齋集      | B039  | 2015 | 趙秀三                |

|           |      |      |                                                               |
|-----------|------|------|---------------------------------------------------------------|
| 萍遇錄       | B040 | 2015 | 大典顯常                                                          |
| 豹菴稿       | B042 | 2015 | 姜世晃                                                           |
| 楓臯集       | B043 | 2015 | 金祖淳                                                           |
| 霞石遺稿      | B044 | 2015 | 韓弼教                                                           |
| 海藏集       | B047 | 2015 | 申錫愚                                                           |
| 海槎日記      | B048 | 2015 | 趙曦                                                            |
| 峴首甲藁      | B049 | 2015 | 洪吉周                                                           |
| 壺谷集       | B050 | 2015 | 南龍翼                                                           |
| 欽英        | B052 | 2015 | 俞晚柱                                                           |
| 善隣風雅(牛窓錄) | B014 | 2017 | 小徒周省                                                          |
| 睡餘放筆      | B016 | 2017 | 洪吉周                                                           |
| 睡餘演筆      | B017 | 2017 | 洪吉周                                                           |
| 隨槎錄(韓弼教)  | B018 | 2017 | 韓弼教                                                           |
| 隨槎錄       | B019 | 2017 | 盧以漸                                                           |
| 善隣風雅(牛窓錄) | B029 | 2017 | 小徒周省                                                          |
| 乙丙朝天錄     | B030 | 2017 | 許筠                                                            |
| 韓館唱和      | B045 | 2017 | 林信言/林信愛                                                       |
| 韓館唱和續集    | B046 | 2017 | 林信言/林信愛                                                       |
| 雪岫外史      | B015 | 2018 | 李喜經                                                           |
| 秋齋集       | B039 | 2018 | 趙秀三 권7 『秋齋紀異』                                                 |
| 和國志       | B051 | 2018 | 元重舉                                                           |
| 智水拈筆      | B053 | 2018 | 洪翰周                                                           |
| 鶴岡散筆      | B054 | 2018 | 洪爽周                                                           |
| 青莊館全書     | B038 | 2019 | 李德懋                                                           |
| 陶谷集       | B055 | 2019 | 李宜顯                                                           |
| 老稼齋燕行日記   | B056 | 2019 | 金昌業                                                           |
| 農巖集       | B057 | 2019 | 朴趾源                                                           |
| 星湖僊說      | B058 | 2019 | 李瀾                                                            |
| 潛谷先生遺稿    | B059 | 2019 | 金堉, 『朝京日錄』 1637년 2월 2일~1637년 6월 2일조, 신익성 발문(『潛谷先生遺稿』 권14에 수록) |
| 海槎東遊錄     | B060 | 2019 | 申維翰 『靑泉續集』 권3                                                 |
| 東樊集       | B010 | 2019 | 李晩用                                                           |

위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60여 종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과 지식인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이 가운데 인적 관계망과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로 배치하되, 활용 빈도가 높은 자료를 위주로 그 내용을 입력하여 구축하였다.<sup>11)</sup> 구축 자료의 경우 개인 문집은 물론, 필기류와 사행 기록 등 다양하다. 특히 필기류를 비롯하여 사행록에서 다수의 내용을 활용한 반면, 개인 문집은 인적 관계망과 지식 관련 부분만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필기류를 비롯하여 사행록은 새로운 지식과 이국 인물의 교유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수록하고 있지만, 개인 문집은 사뭇 다르다. 일부 교유 관계를 담고 있는 부분을 비롯하여 특정 지식의 수수관계나 서적의 유통을 기록한 부분, 시사와 문예 활동을 통한 인적 관계를 담고 있어 일부분의 내용을 주로 활용하였다. 요컨대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활용 방식을 달리하여 입력하였다. 부분적인 내용을 활용한 문집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EADING**  
자료열람

田 인물정보  
田 지식정보  
田 출판정보

☛ > 자료열람 >

• 「逸山泉金上會命吾入燕」

秋史當今之一坡。子由文亦決江波。燕臺又設黃金價。郭客休誇白雪歌。爭道君家難弟在。始知東國碩人多。春來認想平安報。先遣書虹夜渡河

• 관련인물(2명)

| 이름(한자)   | 생년 ~ 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조수삼(趙秀三) | 1762~1849 | 한국 | 漢陽 | 芝園, 子益 | 秋齋, 經職 | 승문원 서리 | 『秋齋集』 |
| 김영희(金命喜) | 1788~1857 | 한국 | 慶州 | 性源     | 山泉     | 江東 현령  |       |

• 관련지식(0건)

〈자료열람-문집〉

11) 이들 자료 외에 지식의 생성과 유통을 비롯하여 지식인의 관계망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지속해서 입력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로 입력할 대상은 使行錄이다. 사행록의 경우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외부 지원을 받아 10년 사업으로 ‘연행록 DB’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연행록 DB’ 사업은 2022년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인바, 이 사업 종료 이후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합 구축한다면 완성도 높은 학술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秋齋 趙秀三이 연행하는 金命禧(1788~1857)를 위한 送詩다. 조수삼은 추사 金正禧 兄弟와 교류하였고 문학으로 상호 소통한 바 있다. 조수삼과 김명희가 교류한 내용은 『秋齋集』 권3에 나온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문집의 경우 직접 교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재집』 전체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학술 플랫폼에서는 통합 검색 기능을 두어 ‘검색’과 ‘상세검색’ 항목을 두어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확인할 인물과 지식 관련 어휘를 넣고 검색하면 인물 관계망이나 지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전정보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 Ⅲ. 조선조 후기 學術과 文藝 場에서 지식·지식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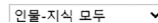
그렇다면 학술과 지식 장에서 이러한 지식과 지식인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전근대 다양한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정과 지식인들의 국내외 인적 관계망을 통해 당시의 학술과 문예적 동향을 알 수 있다. 한 인물이 어떤 인물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를 통해 어떠한 학예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러 지식과 지식인지도가 학술과 문예의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한다.

耳溪 洪良浩(1724~1802)의 지식인 관계망을 예로 든다. 이 지식인 관계망에서는 홍양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 인물을 통해 어떠한 학술과 문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식정보를 상호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메인화면의 지식관계망에서 홍양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지식인 관계망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온다.



🏠 > 지식인관계망 > 인물정보

인종 : ☐ 한국 ☐ 중국 ☐ 일본 ☐ 기타    지식 : ☐ 지식



홍양호의 경우, 국내 인물과의 관계는 주로 혈연과 詩社나 雅會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 위의 그림에서는 線을 통해 알 수 있거니와, 師承이나 血緣과 親族, 또는 交遊와 詩社, 雅會 등의 관계를 선으로 표시하였다. 혈연관계에서 보듯이 조선 양명학의 시원으로 불렸던 鄭齊斗의 수제자 沈鎬은 홍양호의 외숙임을 알 수 있는데, ‘血緣-外叔’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조 집권 초기의 실력자였던 洪國榮과 홍양호는 ‘혈연-친

족'의 관계로 나타나 있다. 松石園詩社의 맹주였던 千壽慶(?~1818), 당대 최고의 畫員 金弘道(1745~?)는 홍양호와 '문화-아회' 관계다. 또한, 1748년 戊辰通信使行 일원이었던 李鳳煥 製述官으로 참가하였던 여항시인 朴敬行(1710~?)과는 '문화-아회'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박경행은 閭巷人으로 문과에 합격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 주목받던 인물이다.<sup>12)</sup>

이처럼 인물 정보에서 지식인 관계망을 검색하여 해당 인물을 주목하면, 그 해당 인물과 관계가 있는 모든 인물을 관계망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물과의 관계는 선으로 표시되어 어떤 양상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한글 자모순으로 다음과 같은 관련 인물도 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는 홍양호와 관련이 있는 20명의 인물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관련인물(20명)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관계                      |
|----------|-------------|----|-------------------------|
| 기윤(紀昀)   | 1724 ~ 1805 | 중국 | (1)<br>-> 문화·詩會, 契會, 雅會 |
| 김홍도(金弘道) | 1745 ~ 미상   | 한국 | (1)<br>-> 문화·詩會, 契會, 雅會 |
| 나일(羅烈)   | 1731 ~ 1803 | 한국 | (1)<br>-> 문화·詩社         |
| 남용만(南龍萬) | 1709 ~ 미상   | 한국 | (1)<br>-> 문화·詩會, 契會, 雅會 |
| 대구형(戴衡亨) | 1755 ~ 1811 | 중국 | (1)<br>-> 문화·詩會, 契會, 雅會 |
| 박경행(朴敬行) | 1710 ~ 미상   | 한국 | (1)<br>-> 문화·詩會, 契會, 雅會 |
|          |             |    | ...                     |

〈홍양호 관련 인물 일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인물의 경우, 생몰년과 국적, 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런데 홍양호와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12) 李奎象은 『并世才彥錄』의 「文苑錄」에서 박경행을 시에 특장을 지닌 인물로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有朴景行, 京城閭巷人. 父道郁, 與景行, 俱文章. 景行中重試, 官縣監. 其詩曰, 雨稀細潤平身渡, 花落空枝默想看. 又曰, 茵蔯屏如新滴滴, 琉璃盞憶舊深深.”

있는 내용은 ‘관계’ 항목을 클릭하면 출전정보와 함께 관련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홍양호와 관계를 맺고 있는 화원 金弘道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자.

☛ > 자료열람 >

• 「題檀園金弘道扇畫」

朱明用事。如坐洪爐。杜子詩束帶發狂欲大叫。真是此時光景。忽得便面墨竹。秀幹疎葉。颯颯有清飈。滿我懷袖。不覺神骨爽然。今乃知此君不惟傲霜。亦能辟暑也。然苟非筆端有神。又安能發眞性於幻境乎。檀園子可謂得虎頭之三昧矣。

• 관련인물(2명)

| 이름(한자)   | 생년 ~ 돌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홍양호(洪良浩) | 1724~1802 | 한국 | 豊山 | 漢師 | 耳溪                         | 평안도관찰사,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대제학 | 『耳溪集』 |
| 김홍도(金弘道) | 1745~미상   | 한국 | 金海 | 士能 | 檀園, 丹邱, 西湖, 高眠居士, 醉雲士, 輒醉翁 | 圖書署書員                     |       |

〈관련 자료-김홍도〉

홍양호와 김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자료는 『耳溪集』 권16, 「題檀園金弘道扇畫」에 나온다. 두 인물은 문예로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내용은 홍양호가 무더위를 만나 金弘道가 그려준 대나무 부채 그림을 보고 감상한 글에 나온다. 제시한 내용은 홍양호는 그림의 신묘함이 顧愷之의 정수를 얻었다고 고평하면서 김홍도의 솜씨를 칭찬하고 있다.

무더위가 한참 위세를 부려 마치 불가마에 앉아 있는 듯하니, 杜甫의 시에 “관대를 매고 있자니 발광하여 소리치고 싶네.”라는 것이 참으로 이 무렵의 光景이다. 홀연히 便面의 대나무 그림을 얻었는데 빼어난 가지와 성근 잎사귀에

선들선들 맑은 땃바람이 불어 소맷자락에 가득 차는 듯하니 정신과 뺏속까지 시원함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야 대나무가 추위에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위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진실로 筆鋒의 神妙함이 없다면 또 어떻게 허상의 풍경 속에서 참된 본성을 발현할 수 있으랴! 檀園子는 顧愷之의 妙理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내용은 김홍도가 그려준 대나무 절부채를 부치면서 무더위를 쫓아내면서 扇畫의 효용성과 함께 그림 솜씨를 칭송하는 장면이다. 제시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홍양호와 김홍도는 각별한 사이였다. 김홍도는 홍양호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을 뿐만 아니라,<sup>13)</sup> 문예를 통해 지속해서 교류한 바 있다. 김홍도가 절부채에 대나무 그림을 그려 홍양호에게 선물한 것도 인간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이는 오랜 기간 문예로 서로 소통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양호와 관계를 맺은 관련 인물 중, 박경행은 앞서 언급한 대로 戊辰通信使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홍양호는 박경행으로부터 에도막부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화원이었던 김홍도와 文藝 관련 지식을 소통하며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홍양호가 다른 인물과도 개방적 교류 관계를 맺고 있음은 ‘인물 정보’의 관계망을 통해 알 수 있다. 관련 인물의 ‘관계’ 항목을 검색하면 어떠한 관계를 맺고 무엇을 교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조 지식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2명이 나온다. 그림 오른쪽 위에 푸른색○ 안에 紀昀(1724~1805)과 戴衢亨(1755~1811)이 그들이다. 홍양호는 이들과 연행에서 직접 만나 교류하였다. 기운은 이제 홍양호가 사행에서 교류 관계 중 문화 항목 하위의 雅會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관계’ 항목의 선을 따라가면 ‘문화·詩會·契會·雅會’로 연결되어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운과 다른 인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운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다.

13) 홍양호의 아들인 洪羲俊은 당대의 뛰어난 화원이던 李命基, 韓宗裕, 金弘道 등이 이제 홍양호의 초상화를 그렸음을 언급하고 있다. 『傳舊』 八, 「碑誌」 二 「本生先府君遺事」 “府君畫像, 家藏二本, 一本即庚寅莅海營時, 畫員韓宗裕所摸, 衣冠畫帽帶者也. 一本丙辰五月, 前察訪李命基所摸, 衣冠以常時, 所着臥龍冠衣, 前縣監金弘道所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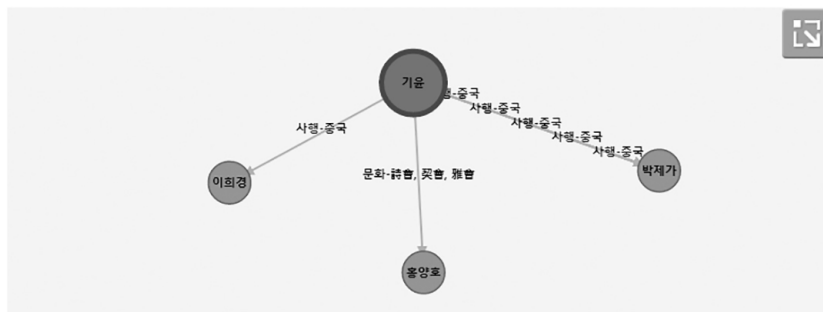
## 인물정보

🏠 > 지식인관계망 > 인물정보

• 기윤(紀昀)

인물 :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지식 : **지식**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기윤(紀昀) | 1724 ~ 1805 | 중국 |    | 曉嵐, 春帆 | 石雲, 觀霏道人 | 禮部尙書 | 『四庫全書總目提要』, 『紀文達公遺集』, 『蘭蕙草堂筆記』 |



〈기윤의 관계망과 인물 정보〉

기윤은 홍양호와 박제가, 그리고 이희경 등과도 인적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다.<sup>14)</sup> 위의 관계망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윤은 홍양호를 비롯하여 朴齊家와 李喜經 등의 인물과 모두 연행을 통해 인적 관계를 맺었다. 특히 홍양호와 기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지식·정보를 주고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의 <홍양호의 관련 인물 기윤>에서 ‘관계’ 항목의 ‘雅會’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雅會’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14) 기윤은 연행록에 자주 등장한다. 그는 오랜 기간 禮部尙書를 맡아 외교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데다 『四庫全書』 편찬의 總纂官이 되어 오랜 기간 편찬 사업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연행사에 참여한 조선조 인사들과 공적 사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연행록과 조선조 후기 문집을 보면 기윤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차후에 이러한 자료를 입력하면 기윤과 관계를 지닌 인사는 물론 기윤과 어떤 관계를 통해 지식·정보와 연결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지식인지도 플랫폼에 입력한 자료 박제가의 『貞蕤閣集』과 洪良浩의 『耳溪集』 일부, 그리고 李喜經의 『雪岫外史』 등이기 때문에 기윤과 관련을 가지는 인사와 관련 지식·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與紀尙書書」

前冬貢行。修上一書。仰訊起居。兼呈三篇詩矣。會值大禮事繁。只承領受之教。而今夏賁咨官之行。敬付赫蹄。冀奉回音。又因郊祀期迫。春官事鉅。未暇賜答。而手書七律一篇。詞旨溫厚。精神灌注。音節疎亮。擊讀珍翫。如獲拱璧。厥後寒暑遡易。伏惟寅亮直清。鼎茵崇重。鄙人衰朽益甚。舊學都荒。恐負知音之盛意。祇切愧惕。向者赴京時。伏承贐行二物。俱是文房珍品。致意鄭重。感佩無比。而臨行未及仰暴謝悃。歸後賦得長篇。要作傳後之資。敢此手寫以呈。望垂斧教焉。不腆土物。聊表菲誠。千萬不敢盡懷。伏希崇亮。

• 관련인물(2명)

| 이름(한자)   | 생년 ~ 월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홍양호(洪良浩) | 1724~1802 | 한국 | 豊山 | 漢師     | 耳溪       | 평안도관찰사,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대제학 | 『耳溪集』                          |
| 기윤(紀鈞)   | 1724~1805 | 중국 |    | 曉嵐, 春帆 | 石雲, 戰弈道人 | 禮部尙書                      | 『四庫全書總目提要』, 『紀文達公遺集』, 『閔薇草堂筆記』 |

이 자료는 『耳溪集』 권15의 「與紀尙書書」에 나온다.<sup>15)</sup> 위의 지식인 관계망에서는

- 15) 원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전 겨울 사행 시에 편지 한 통을 올려 안부를 여쭙고 함께 시 3편도 드렸습니다. 마침 大禮의 일이 번다함을 만나 단지 받았다는 소식만 받았습시다만 이번 여름 齋咨官이 가는 편에 삼가 작은 종이에 편지를 적어 답신을 바랐습니다. 또한, 郊祀를 지낼 시기가 임박하여 禮部에 일이 많아 답장을 주실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손수 쓰신 七言律詩 1편은 글 뜻이 溫厚하고 閣下의 정신이 가득 담겨있으며 音節이 활달하고 시원하여 삼가 받들어 읽어 보배처럼 완미해 보니 마치 큰 玉璧을 얻은 듯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재차 바뀌었는데 삼가 공경히 받들어 곧고 맑게 직무를 수행하시는 공께서 尊體 기거가 편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몸이 더욱 쇠하여 옛날에 배웠던 것이 모두 쓸모없이 되어버렸으니 知音의 盛意를 저버릴까 절절하게 부끄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지난번 연경에 갔을 때 전별의 선물로 두 가지 물품을 받았는데 모두가 文房의 珍品이었습니다. 마음 써주심이 정중하여 감격스러운 심정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만 출발에 즈음하여 감사의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귀국 뒤에 지은 長篇을 후세에 전할 자료로 삼고자 하여 감히 손으로 써서 올리니 질책하여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변변치 않은 토산물은 애오라지 작은 정성을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천만 가지로 많지만, 감히 회포를 다 풀어놓지 못합니다. 삼가 밝게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중국] 인물로 표시되어 있다. 관련 인물은 도표와 같이 이름과 생몰년, 국적과 본관을 비롯하여 자와 호, 그리고 관직을 역임한 경우, 대표 관직을 제시한 다음 이어서 문집과 저술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자료는 耳溪 洪良浩가 1794년 冬至正使로 燕京에 갔다가 1795년에 돌아온 이후 청의 禮部尙書였던 紀昀에게 쓴 편지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고 있던 사실과 홍양호가 기운에게 받은 선물에 고마움을 표하고 토산물을 보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인사는 연행을 통해 시를 주고받으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류하며, 지속해서 문방과 기물을 선물로 주고받고 있음만큼 일국의 공간을 뛰어넘어 神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연행에서 직접 만나 이후의 교류는 주로 이후 사행에 참여한 인편을 통해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6)</sup>

또한, 홍양호는 1782년 연행에서 처음 戴衢亨<sup>17)</sup>과 교류한 바 있다. 대구형은 당대 이미 수재로 이름을 얻어 연행에 참여한 인사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戴衢亨은 朴趾源의 『熱河日記』의 「口外異聞」에도 나오거니와, 박지원은 그를 當今名士로 지목한 바 있고, 柳得恭의 『燕臺再遊錄』에서도 대구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홍양호는 대구형과 직접 만나 교류하였지만, 朴趾源, 柳得恭, 李禧經(1745~1805) 등은 연행에 참여한 인사를 통해 그 이름을 듣고 간접적으로 교류하였다. 대구형은 홍양호와 만나 이후 계속 학술과 문예를 주제로 교류하면서 관련 지식·정보를 지속해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홍양호와 대구형의 교류는 국내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19세기 초에 李裕元은 대구형의 말을 인용하여 “東人の 서예가 중에서 北海의 법을 터득한 사람은 오직 耳溪 洪良浩 뿐이라 하였으니, 청나라의 문사 戴衢亨의 말이다.”<sup>18)</sup>라 하여 홍양호의 예술적 성취를 高評할 때, 北海 李邕(675~747)의 필법을

16) 진재교, 「18세기 朝鮮朝와 淸朝學人の 학술교류-洪良浩와 紀昀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1~323면.

17) 대구형은 會試에서 일등을 하여 會元이 되었고 鄉試에서 일등을 하여 解元이 되었고, 殿試에서 일등하여 壯元이 되어 連中三元의 수재였다. 당시 회시, 향시, 전시 등에서 일등으로 급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대구형은 連中三元을 이룰 정도로 당대 가장 뛰어난 文才를 지닌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 『林下筆記』 권32, 「句一編」, 「娑羅樹碑」, “東人筆得北海法者, 惟洪耳溪, 華士戴衢亨之言也.” 이 내용은 『耳溪集』 卷16, 「題李北海娑羅樹碑」에도 나온다.

터득한 사실을 들어 인정한 것은 그러한 사례다.

위에서 보듯이 홍양호의 관련 인물을 통해, 그가 어떠한 인물과 어떤 계기로 교류하고 있으며, 어떤 지식·정보를 통해 문예와 학술 장에서 상호 소통하며 유통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홍양호도 그간 입력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인물이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식인 관계망을 통해 인물과 지식·정보의 관련 양상도 일부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연암 박지원처럼 입력한 내용이 많은 경우 관련 양상의 폭과 넓이는 사뭇 다르다. 박지원의 지식인 관계망은 다음과 같다.

#### RELATION 지식인관계망

##### 인물정보

- 한국
  - 가(264)
  - 나(41)
  - 다(15)
  - 마(26)
  - 바(92)
  - 사(161)
  - 아(497)
  - 자(174)
  - 차(44)
  - 타(14)
  - 하(158)
- 중국
- 일본
- 기타
- 지식정보
- 출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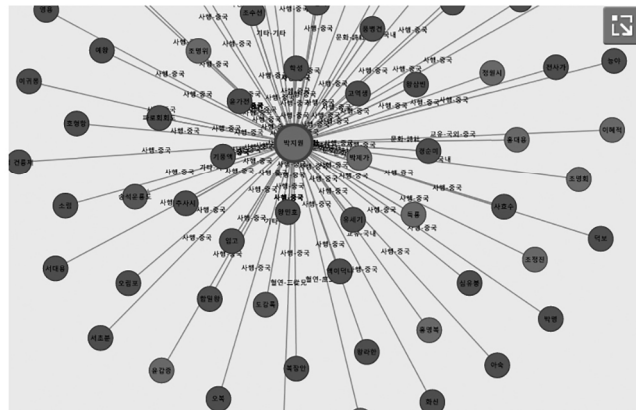
##### 인물정보

홈 > 지식인관계망 > 인물정보

##### \* 박지원(朴趾源)

인물: 한국 일본 기타 지식: 지식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박지원(朴趾源) | 1737 ~ 1805 | 한국 | 湖南 | 夷仲, 仲美 | 燕巖, 煙淵, 勇上外史 | 한성부판관, 양양부사 | 『燕巖集』, 『熱河日記』 |



##### \* 관련인물(66명)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관계              |
|----------|---------|----|-----------------|
| 강영태(康永太) | 미상 ~ 미상 | 중국 | (1)<br>-> 사림-중국 |

박지원의 경우 청조 지식인은 물론 에도막부 지식인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라마교의 수장인 額爾德尼[라마교의 수장 판첸라마의 호]와 몽고인 破老回回圖, 그리



고 회回國인 哈密王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박지원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인사는 모두 66명이다. 그런데 국내 인사들과는 기왕에 알려진 것처럼 使行과 詩社, 血緣과 交遊 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특히 柳得恭, 朴齊家, 盧以漸, 洪命福 등 중간 계층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점과 함께 ‘松石雲龍圖’ 등의 繪畫 관련 지식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9)</sup>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박지원의 지식인 관계망을 통해 그가 국내외 지식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어떤 지식과 관련되는지 알 수 있거니와 이는 앞서 홍양호의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인 관계망 밑에 ‘관련 인물’의 ‘관계’ 항목을 클릭하면 나온다.

한편, 국내 인사를 통한 지식인 관계망도 알 수 있지만, 국외 인사를 중심에 두고 지식인 관계망도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에도막부 인사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조 지식인과의 관계망이다. 에도막부 지식인과 조선조 지식인의 관계는 주로 통신사행에 참여한 인사들이 남긴 사행록과 조선조 지식인과 교류한 일본 문사가 남긴 筆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以配庵의 주지였던 大典顯常(1719~1801)의 지식인 관계망에서 볼 수 있다.<sup>20)</sup>

大典顯常은 1763년 계미통신사로 참여한 중간 계층의 인사인 南玉(1722~1770), 成大中(1732~1812), 元重舉(1710~1790), 金仁謙(1707~1772), 李彦璵(1740~1766) 등과 교류하였다.<sup>21)</sup> 그러한 조선 지식인과 大典顯常의 인적 관계망은 다음과 같다.

19) 『貞蕤閣集』 詩, 「松石雲龍圖歌, 戲爲燕巖作」에 ‘松石雲龍圖’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2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이텐 지음, 진재교·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 지식인 조선을 엿보다-萍遇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참조.

21) 1763년 계미통신사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崔英泰(1723~?)의 사행 기록인 『東槎紀行』은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자료는 미처 입력하지 못하였다. 이 자료를 입력한다면 조선조 지식인들이 일본 지식인과 더욱 다양하게 교류하여 지식·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東槎紀行』은 정우봉, 「1763년 계미통신사행록 『東槎紀行』의 작자와 일본 체험」, 『한국한문학회연구』 83, 한국한문학회, 2021, 293~331면.

[illegible]

### 〈지식인 관계망-대전현상〉

大典顯常은 조선 문사와 일본 문사 등을 포함하여 모두 22명과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조선 지식인은 ‘기무라 겐카도[木村 蒹葭堂]’라는 인물을 통해 대전현상과 함께 오사카 지역의 다양한 에도막부 지식인을 만났다. 木村은 술을 팔아 致富상인인데, 풍부한 재력으로 서적과 서화 등을 수집하여 개인 서재인 ‘蒹葭堂’에 대거 수장하였다. 木村이 세운 ‘蒹葭堂’은 국내외의 서적 수만 권을 소장할 정도의 藏書樓로 유명한 데다, 그 역시 소장한 장서와 중국의 유명 인물의 서화 수장가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친 바 있다. 癸未通信使에 참여한 조선 지식인도 木村의 ‘蒹葭堂’에서 다양한 희귀본과 서화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외의 서적과 서화의 수집과 유통은 물론 오사카 지역 지식인들의 문예 활동 등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대중은 ‘蒹葭堂’을 직접 방문하여 목촌에게 雅集圖를 부탁하여 ‘蒹葭雅集圖’를 선물로 받기도 하였다.<sup>22)</sup>

22) 『青莊館全書』卅32,『清脾錄』一,“木弘恭字世肅,日本大坂賈人也。家住浪華江上,賣酒致富,日招佳客,賦詩沽酒,購書三萬卷,一歲賓客之費數千金。自筑縣,至江戶數千餘里,士無賢不肖,皆稱世

그런데 대전현상과 木村를 비롯하여 오사가 지역의 문사들과 조선조 지식인과의 필담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현상과 관련 있는 ‘관련 인물’ 22명에서 ‘관계’ 항목에 나오는 자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대전현상이 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 인물을 제시하였다. 대전현상과 관계를 맺은 인물은 국내외 지식인 22명인데, 다음의 그 인물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생몰년과 국적, 그리고 관계가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

• 관련인물(22명)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관계                                              |
|--------------|-------------|----|-------------------------------------------------|
| 김언겸(金仁謙)     | 1707 ~ 1772 | 한국 | (6)<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 나파사승(那波師曾)   | 1727 ~ 1789 | 일본 | (1)<br>-> 사행-일본                                 |
| 남옥(南玉)       | 1722 ~ 1770 | 한국 | (5)<br><- 문화-詩會, 奕會, 雅會<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 목촌겸가당(木村兼敬堂) | 1736 ~ 1802 | 일본 | (5)<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 박재가(朴齊家)     | 1750 ~ 1805 | 한국 | (1)<br><- 사행-일본                                 |
| 복원승명(福原承明)   | 1735 ~ 1768 | 일본 | (1)<br>-> 사행-일본                                 |
| 부야의운(富野龜鳳)   | 1733 ~ 1791 | 일본 | (4)<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 성대중(成大中)     | 1732 ~ 1812 | 한국 | (8)<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 세합두남(細合斗南)   | 1723 ~ 1803 | 일본 | (1)<br>-> 사행-일본                                 |
| 악수정복(藥樹淨復)   | 1739 ~ 1829 | 일본 | (10)<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 원중거(元重學)     | 1719 ~ 1790 | 한국 | (6)<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br>-> 사행-일본         |

〈대전현상-관련 인물〉

肅. 又附商舶, 得中國士子詩數篇, 以揭其壁. 築菴葭堂於浪華江, 莢花荻葉, 蒼然而靡, 瑟瑟而鳴, 檣篷烟雨, 極望無際. 與笠常, 淨王, 合離, 福尙脩, 葛張, 罌元鳳, 片猷之徒, 作雅集於堂上. 歲甲申, 成龍淵大中之入日本也, 請世肅, 作雅集圖, 世肅手寫橫綰, 爲一軸, 諸君皆記詩於軸尾, 書與畫, 皆肅閒逸品. 笠常作序, 常浮屠也., 深曉典故, 性又沈篤, 淨王, 常徒也, 清楚可愛, 合離, 亦奇才. 軸後列書, 越後片李秩, 平安那波孝敬, 平安合麗王, 浪華福承明, 浪華田. 案應與罌字通. 公翼, 浪華葛子琴, 淡海僧太眞, 伊勢僧藥樹, 案或是笠常之號歟. 主人浪華木世肅, 今只存葛張詩.” 성대중이 선물 받은 ‘菴葭雅集圖’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외 관련 인물은 모두 대전현상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통신사행에 참여한 조선조 지식인은 사행을 통해 연결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들 중 성대중과 원중거, 남옥 등은 일본 지식인과 雅會로 이어진다. 특히 성대중은 ‘蒹葭雅集圖’에 서문을 적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사행은 ‘자료열람’에서 ‘검가아집도’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출전정보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전정보

☛ > 자료열람 > 출전정보

### • 「蒹葭雅集圖序」

及其將反, 龍淵成公請使世肅作蒹葭雅集圖, 同社者各題詩其末, 曰: ‘齋歸以爲萬里顏面’云爾. 嗚呼! 成公之心, 與夫置身蒹葭之堂者, 豈有異哉? 則世肅之交一鄉一國以至四海固矣. 夫今何以得之異域萬里之外也? 惟國家之待大賓, 可謂儼然重矣, 而至其私覲之愉愉也, 顧與世肅輩爲之矣. 雖世肅之禮且和乎, 苟非國家所與, 其能如是乎? 余也文非其道, 然亦辱成公之視猶世肅也, 其感於異域萬里之交, 不能無莞乎內而著乎外也, 作蒹葭雅集圖序.

### 〈자료열람-검가아집도서〉

자료의 출전은 대전현상의 『萍遇錄』이다. 제시한 내용은 목촌이 그린 ‘검가아집도’에 적은 서문의 일부인데, 대전현상이 서문을 적은 경위를 밝힌 것이다.<sup>23)</sup> 목촌은 ‘검가아집도’에서 詩社에 참여한 인사들이 시를 적어, 만 리 밖 이국에서도 얼굴을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어서 목촌은 사해의 교본으로 이역만리 밖의 인사와의 교유며, 이러한 사림에 감격하여 마음속 쌓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 서문을 짓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통신사에 참여했던 성대중과 원중거 등은 귀국 이후 일본에서 체험하고 견문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자신의 사행록에 기록하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견문 체험한 다양한 일본 지식을 박지원을 비롯한 연암 그룹 인사들은 물론 국내 지식인들에게도 알리는 등 이국의 새로운 문물과 지식·정보를 서율 학계에 전달해주었다. 박지원이 『熱河日記』의 「銅蘭涉筆」에서, 이덕무는 『靑莊館全書』의

23) 이 번역은 다이텐 지음, 진재교·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 지식인 조선을 엿보다-萍遇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286~287면.



화면에서 보듯이 조선조 후기에 안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 인물과 관련을 맺으며, 지식과 연결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 지식인은 주로 혈연관계를 통해 안경을 받거나 교유를 통해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려 쓰거나 중국에서 수입하는가 하면 국왕에게 하사품으로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경을 획득하였다. 이처럼 안경은 주로 특정 인물 간의 증여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혈연관계를 통해 주고받거나 교유 관계를 통해 안경을 습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柳得恭처럼 국왕으로부터 하사품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에 안경이 널리 보급되자 다양한 인물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학술과 문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안경은 조선조 지식인들의 독서활동과 관련이 깊다. 게다가 학술에 이어 문예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만큼 혁명적利器로 비상을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안경은 학자들의 老眼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독서 시간과 저술 활동을 연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안경은 다양한 계층의 지식인들이 폭넓은 저술 활동과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견인할 만큼 조선조 후기 물질문화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안경의 보급과 확산은 학술과 문예 활동과 다양한 저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식의 유통과 확산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sup>25)</sup>

여기서 李玄逸의 사례를 통해 안경의 유통 경로를 보자. 이는 위의 ‘지식정보’에서 이현일을 클릭한 다음, ‘자료열람’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더욱이 안경의 출현으로 사대부 지식인은 독서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오랜 기간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토대로 풍부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안경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지식·정보의 축적과 확산에 공헌하였고, 나아가 혁명적利器로 역사 무대에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안경의 광범위한 보급은 미시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으로 당대 문화 전반에 까지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 문제는 진재교, 「조선조 후기 眼鏡과 文化의 生成-안경으로 읽는 조선조 후기 문화의 한 국면」, 『한국한문학연구』 62, 한국한문학회, 2016, 276~293면.

## READING

## 자료열람

⊕ 인물정보

田 지식정보

출전정보

☛ > 자료열람 >

• 答李三宰【觀微〇己巳】

頻繁手札。曲賜存存。仰認德意。豈勝感戴。玄逸一疾沈綿。尚稽趨謝。負罪實深。送下眼簾。一掛昏眸。頓還舊觀。所謂賜之以既盲之視。何感如之。餘俟病間。躬謝伏計。

- 관련인물(4명)

| 이름(한자)   | 생년 ~ 종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이관직(李觀職) | 1618~1695 | 한국 | 延安 | 국빈(國賓) | 근옹(芹翁)<br>· 근곡(芹谷) |      |    |
| 이관직(李觀徵) | 1618~1695 | 한국 | 延安 | 국빈(國賓) | 근옹(芹翁)<br>· 근곡(芹谷) |      |    |
| 이현일(李玄逸) | 1627~1704 | 한국 | 戴亭 | 익송(翼孫) | 남약(蘭閣)             |      |    |
| 이현일(李玄逸) | 1627~1704 | 한국 | 戴亭 | 익송(翼孫) | 남약(蘭閣)             |      |    |

〈지식정보-자료〉

위에 제시한 자료는 두 인물 간에 안경을 주고받는 사실과 이것과 관련한 개인적 감상을 담은 내용이다.

자주 편지를 보내셔서 곡진하게 돌보아 주시고 위문해 주시니, 우러러 덕을 베풀어 주신 뜻을 생각하니 어찌 감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玄逸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아 아직 찾아뵙고 사례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지은 죄가 실로 깊습니다. 보내 주신 안경은 침침한 눈에 한 번 써 보니 단번에 이전 시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위 이미 소경이 된 눈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만 즐기고, 병이 다소 차도가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사례를 드릴 생각입니다.<sup>26)</sup>

26) 『葛庵先生文集』 卅8, 「答李三宰」 觀徵○己巳, 頻繁手札, 曲賜眷存, 仰認德意, 豈勝感哉? 玄逸一疾沕綿, 尚稽撫謝, 負罪實深, 送下眼鏡, 一掛昏眸, 頓違舊觀。所謂賜之以既盲之視, 何感如之? 餘矣

이현일이 편지로 답을 한 李三宰는 李觀徵(1618~1695)다.<sup>27)</sup> 이관징이 병상에 있는 李玄逸(1627~1704)에게 여러 차례 문안 편지를 한 것은 물론 안경까지 선물로 주자 이현일이 감사 편지를 적었다. 이현일이 병문안의 편지를 받은 것에도 감사하였지만, 노안 문제를 해결해 준 안경을 선물로 받은 것에 더 감동하였을 터이다. 이현일이 안경을 선물로 받은 시기는 1689년이니 그의 나이 63세 무렵이다. 이 무렵 그는 노안으로 고생을 할 시기여서 안경이 없으면 독서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현일이 ‘이미 소경이 된 눈에 은혜를 내려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을 수 있다. 그가 60 대에도 독서와 학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안경 덕이었음은 물론이다. 소경이 된 눈을 이전 시력으로 회복하였다는 언급은 이를 말한다. 이처럼 조선조 후기에 안경은 어떤 물질문화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줄 만큼 중요한 위상을 지녔다.

사실 안경 외에도 自鳴鐘이나 서구에서 유입된 세계지도 등과 같은 물질문화를 통해 새로운 시간관을 통한 현실 인식과 새로운 공간적 사유를 언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이 학술 플랫폼에 입력된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인물과 지식의 관련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당대 사회를 큰 방향을 불러온 물질문화의 사례는 향후 많은 자료의 입력과 함께 다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언급할 사안은 인물 정보와 인물 관계망의 경우 사행에 참여한 인물과 그들의 지식인 관계망이다. 이 경우, 인물 상호 간의 관계가 국내는 물론 국외로까지 열려있어 일국 너머로까지 다양한 지식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인적 관계망을 통해 어떤 인물이 여러 인물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떠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행을 통한 인적 관계망은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역관을 비롯하여 서열 등의 중간 계층은 使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이국의 문사들과 교류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연행에 참여한 朴齊家나 趙秀三을 비롯하여 李喜經(1745~1805) 등이 그러하고, 통신사행에 참여한 洪世泰와 金善臣(1775~1813)의 경우도 그러하다.

病間，躬謝伏計.”

27) 李觀徵은 제1차 禮訟 때 服喪 문제로 송시열 등 西人의 기년 설과 달리 삼 년 설을 주장하다 축출된 南人의 許積과 許穆을 구제하려다 좌천되었다. 그 뒤에 숙종의 신임을 받아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奉朝賀가 되었다. 1694년에 甲戌獄事가 나자 己巳換局 때의 發啓人으로 지목받아 削黜되었다. 이관징은 갑암보다는 9세 연상이다.



특히 18·19세기에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李喜經, 趙秀三, 李尙迪, 朴思浩 등은 연행 사신의 일원으로 연경에 가서, 그쪽 인사들과 친교를 맺고 교류한 바 있다. 朴齊家は 총 4차례, 柳得恭은 총 3차례, 李德懋는 한 차례, 조수삼은 6차례, 李喜經은 5차례, 이상적은 12차례, 박사호는 2차례 연행하며 청조 지식인과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였다.<sup>28)</sup> 사대부 지식인도 사행에 참여하며 국외 인사들과 교류하고, 오랜 기간 교류한 사례도 없지 않다. 洪大容과 朴趾源, 洪良浩와 徐命膺, 그리고 申錫愚 등도 그러한 인물이다. 이들 중 연암 그룹 인물들은 국내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인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연행과정에서는 자신들이 구축한 인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청조 지식인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대부 지식인들은 중간 계층을 통해 이국의 지식·정보를 취하거나 이들이 이국에서 구축한 인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이국의 지식인과 관계를 맺었다. 기실 중간 계층은 사대부 지식인이 이국 인사들과 만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획득하는데 메신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메신저 역할의 경우, 중간 계층 상호 간에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덕무는 조수삼과 사제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 관계를 상호 공유하며 지평을 넓혔다.<sup>29)</sup> 박제가는 추사 김정희를 청조 지식인들에게 소개한 것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게다가 추사 김정희는 李尙迪와 사제간이며, 趙秀三과 이상적, 박사호 등도 서로 교류하며 국내외의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간 계층은 이국 인사와 인적 관계망을 가진 자산을 다양한 지식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지식인들은 일국 안팎에서 이들이 구축한 인적 관계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연행에 참여한 인사들은 중간 계층이 구축한 인적 관계망을 통해 이국 지식인들과 연결할 수 있었고, 일부 인사들은 연행 임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시공을 뛰어넘는 神交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朴齊家다. 그는 4차례나 연행을 하면서 청조의 다양한 지식인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고, 자신이 교류한 인물을 국내에 소개하는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 청조 학예계와 소통하면서 지식·정보의 발신자 역할도 하였다.

28) 心田 朴思浩(1784~1854)는 1828년에 연행한 뒤, 『燕薊紀程』을 저술하였다. 그의 문집 『心田稿』가 있다. 박사호의 연행록에 대해서는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行과 韓中文學交流」,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8.

29) 조수삼의 국내의 교류 양상에 대한 것은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그러면 여기서 박제가의 지식인 관계망을 한 번 보기로 한다. 아래는 朴齊家 (1750~1805)의 인물 정보와 지식인 관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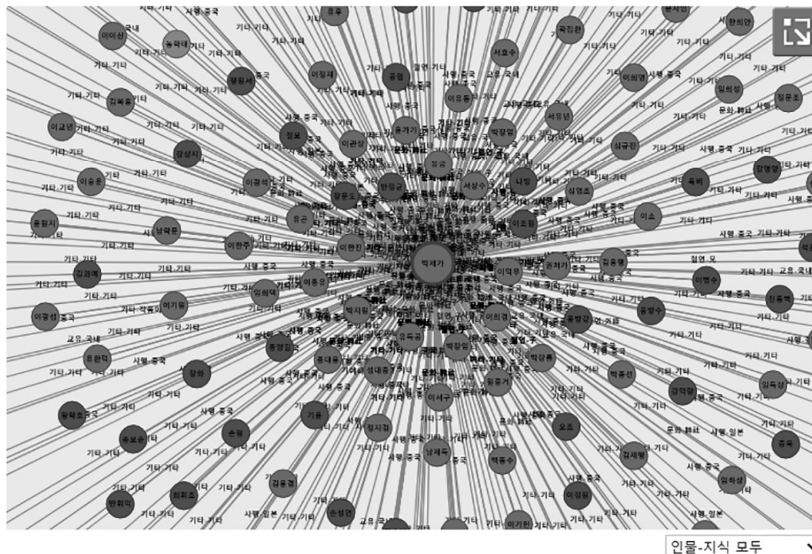
## 인물정보

☛ > 지식인관계망 > 인물정보

### • 박제가(朴齊家)

인물 : **한국** **중국** **일본** **기타** 지식 : **지식**

| 이름(한자)   | 생년~몰년       | 국적 | 본관 | 자              | 호                      | 대표관직        | 문집             |
|----------|-------------|----|----|----------------|------------------------|-------------|----------------|
| 박제가(朴齊家) | 1750 ~ 1805 | 한국 | 密陽 | 次修, 在先, 修其, 顯齋 | 楚亭, 貞義, 奎杭道人, 荅齋堂, 竟信堂 | 규장각검서, 영평현령 | 『貞義簡策』, 『貞義詩稿』 |



### • 관련인물(276명)

### 〈인물 정보-박제가〉

박제가의 관련 인물은 국내를 비롯하여 청조와 에도, 그리고 기타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식정보와 관련하여 많은 건수의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에서 보듯이 관계망은 화면으로 모두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양상이 복잡하다. 지식인 관계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사들은 국내외 인물을 포함하여 모두 276명인데, 국내외 인물과의 비율은 어슷비슷하다. 박제가는 4번의 여행을 통해 수많은 청조 인사와

관계를 맺고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관계망을 두텁고 광범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朴齊家의 셋째 아들 朴長飴이 纂輯한 『縞紵集』을 보면 박제가의 청조 지식인과의 관계 맺는 양상의 폭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縞紵集』은 박제가가 청조 지식인과 시와 편지로 結交한 인물 정보와 주고받은 글을 모아 놓은 것이다.<sup>30)</sup> 이 저술의 卷首에서는 1778년 박제가의 첫 번째 연행에서부터 1801년 4번째 연행까지 부친이 교유한 淸朝 지식인의 인물 정보를 인물 사전처럼 정리해 두었다. 게다가 그는 부친의 연행 시기를 고려하여 청조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고, 시기별로 편집하였다.<sup>31)</sup>

무오년의 것이 第一篇이며 경술년과 신해년의 것이 第二篇, 신유 년의 것이 第三篇이다. 대체로 三篇의 안에 총 110인이 있는데, 事蹟이 간혹 빠뜨려졌거나 소략한 것이 많아 서책에서 찾되 분명하게 고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간혹 篇章의 낙관한 끝머리에서 얻거나, 간혹 낡은 종이의 흐릿한 말미에 뽑아 얻은 바가 겨우 열에 한둘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다만 이름과 姓은 있지만, 함께 字나 號가 없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姓名과 字號가 있지만, 벼슬과 事實이 적막하여 상세하지 못한 것도 많다.<sup>32)</sup>

『縞紵集』에서 박장암은 모두 110명의 청조 지식인의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姓名과 字號, 벼슬과 사실관계 등을 기록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여기에 이들 110명의 청조 지식인들의 정보와 부친과 교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실었다. 등장하는 110명의 청조 지식인들은 박제가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청조 인사와 교유한 인적 관계망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시기 조선조 지식인이 청조 지식인과 교유한 전부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다. 이 점에서 『縞紵集』은 18세기 후반 19세기

30) 『縞紵集』의 卷首는 교유한 인물 정보를 인물 사전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며, 권1, 권2, 권3은 주고받은 편지나 시문을 실고 있다.

31) 『縞紵集』, 凡例, “諸人結交次第, 戊戌辛酉則, 皆爲有第所據, 庚戌辛亥則先後相連, 首尾模糊, 故姑斟酌而序列之.”

32) 朴長飴, 『縞紵集』 凡例, 一, “戊戌爲第一篇, 庚戌辛亥爲第二篇, 辛酉爲第三篇. 凡三篇之內, 摠一百十人, 而事蹟間多闕畧, 其搜于簡冊斑斑可考之外, 或得於篇章款識之末, 或滴於敗紙模糊之餘, 所得才十之一二. 故或只有名姓而并無字號者, 或俱名姓字號而爵里事實, 寂不可詳者, 多矣.”

초반 청조 지식인의 인명사전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sup>33)</sup>

『縞紵集』에 나오는 청조 인물이 위의 화면에 나오는 지식인 관계망 속의 인물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호 겹치는 부분이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사와 관계망을 가진 폭과 범위다. 이국 지식인과의 인적 관계망의 범위가 넓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국 인물과의 관계망의 범위 자체가 이미 이국에서 견문한 지식·정보는 물론 체험을 통한 지식·정보의 획득과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국내 유통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술과 문예의 장을 청의 학술과 문예 공간으로 확대하면, 국내 지식인의 인적 관계망과 관련 지식의 발신 문제는 국내 상황과 사뭇 다르다. 연행에 참여한 18·19세기 조선조 사대부 지식인은 청조의 학술과 문예 공간에서 대체로 지식·정보의 발신자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대체로 청조의 학술과 문예 장으로부터 유입한 지식·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사대부 지식인들은 국내 학술과 문예 장에서는 청에서와 달리 학술과 문예 관련 지식·정보를 독점하고, 심지어 이를 신분제도와 결부하여 위계화 혹은 질서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권위와 지식의 위계질서를 고착화하였다. 이러한 학술과 문예 장에서 중간 계층의 역할과 지식의 발신자로서의 위치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사대부 지식인들은 학술과 문예의 중심부였던 연경의 동향에 귀 기울이며, 그곳으로부터 지식과 정보의 수입에 치중하는가 하면, 국내의 우월적 신분과 정치·사회적 토대 위에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자기화하였다. 그들은 청조에서 생성된 지식과 정보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을 발신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경우는 적었고, 도리어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뿐 아니라, 창조로부터 받아들인 지식과 정보(혹은 존재하는 지식·정보)조차도 때로는 국내의 정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반면에 일군의 중간 계층은 일국 밖에서 사대부 지식인보다 새로운 지식·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개방적 자세로 국내의 학예계 인사들과 공유하는가 하면, 이국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발신자로 자임하기도 하였다. 박제가를 비롯하여 李彦璜

33) 조선조 후기 인물지의 경우 진재교,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視野」,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89~91면.

과 趙秀三, 그리고 李尙迪과 李喜經의 경우가 그 사례다. 위의 화면에서 보이는 박제가의 국내외 인사들과의 복잡한 지식인 관계망은 이러한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박제가의 넓은 지식인 관계망을 통해 일국 너머의 교류와 지식·정보의 메신저 역할은 물론 청조에서 지식의 발신자 역할을 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그런 점에서 지식·정보와 관련하여 중간 계층의 역할을 일국에 가두어 놓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일국을 넘어설 때 학술과 문예 장에서 중간 계층이 사대부 지식인과 사뭇 다른 역할과 위상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간 계층을 거론할 경우, 국내외 학술과 문예 장에서의 그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박제가가 연암 그룹 내에서의 위상과 청에서의 위상은 전혀 다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여항문학의 역사적 의미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사실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는 지식인 관계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적 관계를 통한 국내외 지식인 관계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지는 못하였다. 지속적인 자료 입력과 함께 관계망을 보여주는 화면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지식인 관계망을 어떻게 전체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난제다. 현재 화면처럼 放射 형태의 지식인 연결망은 한 화면에서 관계 맺는 인물의 관계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放射형태의 지식인 관계망은 기본적으로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식·정보의 축적이 많아질수록 지식인 관계와 지식과 지식인 사이를 효율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는 전근대 지식인의 상호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지식의 관련 양상을 쉽게 확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일국적 연구시각을 넘어서는 연구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새로운 지식정보

34) 이 문제는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 계층」,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95~109면.

와 인적 관계망을 통한 다양한 시각은 개인 연구가 쉽게 하지 못하는 새로운 學知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국내외 지식인 사이의 교류와 지식을 둘러싼 유통과 전파 양상을 다양한 각도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 의미와 다른 학술적 의미를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의 시선은 새로운 지식정보와 물질문화에까지 확장함으로써 물질문화가 일상에 어떻게 침투하여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데까지 열려있다. 이는 미시적인 것을 통해 사회변화의 계기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의 향후 과제는 보다 많은 자료를 가공하여 입력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를 위해 향후 동아시아학술원의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행록 DB’<sup>35)</sup>와 향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행 기록은 일국 너머의 다양한 지식·정보는 물론 인적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적인 한문 고전자료다. 이러한 사행 기록의 입력과 통합 플랫폼의 구축은 필요하다. 그래야만 방대한 지식·정보의 빅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문 고전자료를 기반으로 학술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특정 인물이 저술한 완결된 텍스트를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다.<sup>36)</sup> 하지만 이것은 학술 플랫폼의 기능과 효과를 매우 제한하고 학문 연구자의 노력 일부를 대체할 뿐이다. 무엇보다 디지털기술과 만나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35) 이 ‘연행록 DB’의 접속 정보는 <http://kcer.skku.edu>이며 ID : yhr2018, Password : yeon2737이다. 하지만 이 포탈은 현재 구축 중이어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연행록 DB’는 朝天錄과 燕行錄을 비롯하여 燕行詩 등 중국 사행 기록을 DB로 구축한 원문검색시스템이다.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모두 315종의 중국 사행 기록을 정문화하여 원문 열람은 물론 연관어 검색과 분류색인을 한 시소러스 검색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사행 기록의 문헌 정보와 사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행록 DB’는 원문과 다양한 검색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연행록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상호인식과 교류, 지식의 유통과 전파 등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36) 이를테면 특정 개인 문집이나, 일기류, 혹은 단일 저술의 필기류나 특정 인물의 사행 기록 등과 같은 한문 고전자료를 기반으로 할 경우, 그 자체로 완성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자료의 분량을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의 학술적 활용에서 매우 제한된 의미만을 추출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방대한 자료를 가공하여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의 구축은 다양하고 거시적 시각의 학술적 의미망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창출에 이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거시적인 학술 아젠다 기반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술 플랫폼은 비록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디지털 인문학의 지평은 물론 인문학연구의 창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학술적인 한문 고전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나 플랫폼과 같은 빅 데이터의 구축은 개인이 발상하지 못하는 학술 아젠다의 생성과 연구 방법의 創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단순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을 넘어 어떠한 한문 고전자료를 어떻게 구축하고 학술적으로 무엇을 생성할 것인가를 깊이 고려해서 설계해야 할 터, 여기에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가 보여주는 학술 장과 지식 장에서의 지평은 넓다. 모든 인문학의 핵심은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동태다. 그런 점에서 지식과 지식인지도는 전근대 지식인의 움직임과 관련 양상을 통해 그 동태와 지식과의 관련 양상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식과 지식인지도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수용과 생성의 궤적과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식의 수용과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변이, 그리고 이것이 사회(시대)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생성에 어떤 계층이 역할을 하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의 구체적인 모습(서구의 물질 문물과 견문체험과 풍문 등)이 인적 관계망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명할 수도 있다. 이는 당대의 역동적인 사회상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학술 플랫폼을 활용하는 한국 고전학 연구는 개인 연구와 사뭇 다른 시야와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http://kcer.skku.edu>

<http://jisik.skku.edu/front/member/login.do>

<http://dev.yoonsid.com:10081/front/main/index.do>

李玄逸, 『葛庵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127 · 128

朴長蘅, 『縞紵集』,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洪義俊, 『傳舊』 규장각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行과 韓中文學交流」,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 자료 사전』 I · II · III · IV, 문예원, 2011~2013

다이텐 지음, 진재교 · 김문경 외 옮김, 『18세기 일본지식인 조선을 엿보다-萍遇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스콧 갤러웨이 저, 이경식 역,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정우봉, 「1763年 계미통신사행록 『東槎紀行』의 작자와 일본 체험」,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2021

진재교, 「18세기 朝鮮朝와 清朝學人의 학술교류-洪良浩와 紀昀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_\_\_\_\_, 「18~19세기 초 지식 · 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 계층」,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_\_\_\_\_, 「조선조 후기 眼鏡과 文化의 生成-안경으로 읽는 조선조 후기 문화의 한 국면」, 『한국한문학연구』 62, 한국한문학회, 2016

\_\_\_\_\_,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지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_\_\_\_\_,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視野」,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 Korean Classical Materials and Academic Platform

Jin, Jae-kyo

This thesis examines how to utilize the vast amount of classical Chinese material in a digital environment. Basically, even in a digital and smart environment, even if it is a classic Chinese material tha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easily access, it is desirable to make content and utilize it by going through a process of processing and composing it in the form of a platform. For this purpose, as an example, I tried to present this through the case of pre-modern East Asian knowledge and knowledge map. In particular, the horizon of academic history is wide in that knowledge and knowledge map show an academic field that is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Moreover, through pre-modern knowledge and knowledge map, it is possible to check the trajectory of acceptance and generation of new knowledge and its trends. You will also be able to check how you are meeting with society. This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perspective and research method for research that cannot be done by individual research.

Key Words : East Asia, classical Chinese material, digital environment, academic platform, knowledge map

